

2. 전통음악의 종류

1) 시조(時調)

시조는 시를 초장·중장·종장의 3장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. 가곡처럼 중여음이나 대여음 같은 전주곡 또는 간주곡이 없으며 관현악 반주를 꼭 갖추어야 할 필요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장구 대신 무릎장단만으로도 즐길 수 있다. 선율은 3음 음계로 단순하며 느린 속도 때문에 일정한 박절감을 느끼기 어려우며 강약은 선율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.

시조는 일반적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르는 경제(京制)시조와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완제(完制)시조,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제시조가 있다. 완제시조는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주로 불리는데, 경제시조와 장단의 길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귀로 들어서 쉽게 구별할 만큼의 큰 차이는 없다. 현재 순천지역에서는 시조를 부르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,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천시우회 회원이 50여 명이 있었으며, 시조의 한계를 넘어 가사와 가곡을 부를 수 있는 명인들도 많았다. 당시에 시조를 잘 부르던 명인으로는 김형완, 윤갑주, 박환성, 심서택, 손복택 등이 있었다.